

동포비자 발급 확대, 자녀입국 급증 예고

문의전화 빗발... '동질성 회복' 등 기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5년 복수 비자를 주는 겁니까?"법무부가 15일부터 전문직 재외동포의 자녀에게도 5년 복수비자를 주는 등 재외동포 사증(F-4) 발급 확대 조치를 시행한 이후 국내의 동포들의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동포 기업인이 입국시마다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류 및 경제활성화, 동포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 한민족 간 유대감을 공고히하자는 취지에서 F-4 체류자격 부여지침'을 개정, 재외동포사증의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묻는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 재

외동포를 대상으로 했지만 중국 지역의 동포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F4 비자 발급은 중국 지역이 3천 100여명인 데 비해 미국과 캐나다 는 각각 2만9천명과 7천200명 등으로 주로 선진국 동포에 편중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조치의 핵심은 기업인 외 자녀와 배우자도 발급 확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동포 2, 3세의 모국 방문이 활성화와 특히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국적의 동포기업인과 교수, 예술인 및 자녀 등의 방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인과 전문직 동포 외에 가족까지도 비자를 받으면 5년간 자유왕래가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시 원하는 기간 3년 단위로

체류기간의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주민의 동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모국을 이해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동포 비자발급의 확대 조치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 동포 기업가는 "재중동포 자녀들은 그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돼 국내 취업은 물론 한국어 연수 기회도 얻기 어려웠다"며 "이로 인해 방학 때면 호주, 일본, 미국 등지로 떠나 일어와 영어 연수 등을 하는 바람에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언어나 문화 프로그램 참여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 자녀들도 한국어 습득은 물론 '할아버지의 나라'

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동포기업인 2, 3세의 동질성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조치는 재외공관의 비자정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큰 성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외공관의 행정담당자들이 개정 취지를 잘 인식해 접수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포단체나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해주는 게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비자신청인이 많아 영사부에서 특정 여행사를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민원인의 직접 방문 인정 등 비자방문 접수율 더욱 더 활성화하는 등 심사절차가 완화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더불어 사는 삶' 강조

외국인근로자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금 제공



"십시일반 기부로 하나 되는 영등포"

20일 '내 고장 사랑운동'에 참여한 김형수(사진) 영등포구청장은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했다

고 한국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여의도의 수많은 마천루와 영등포역 주변 쪽방촌이 공존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영등포구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 주는 곳.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구청장뿐 아니라 40만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내 고장 사랑운동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저소득층,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금이 마련되는 만큼 주저 없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 함양군 출신이지만 영등포구에 정착한 지 40여년째라는 김 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

를 꼼꼼히 챙기기로 유명하다. 3만7,000여개의 소상공업체가 지역 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위기 이후 문래동 철제상가에선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재래시장에서도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많아졌다"며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이자율을 서울시 25개구

중 최저 수준인 연 2%대로 낮추는 등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복지 혜택 수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가정을 대해 실사를 거쳐 3일 이내에 생계, 교육,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긴급민생안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노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도 김 구청장이 각별히 신경 쓰는 사업이다. 김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금 제공뿐 아니라 생애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며 "내 고장 사랑운동 참여도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부를 통해 서로 돕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향에 작은 가게 하나 차리는 것이 소망"

- 한 중국 근로자의 한국생활체험기 -

"가족은 항상 그리웁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고향에 가서 작은 가게를 하나 꾸리는 것이 꿈이지요."

경기도 수원시 오산에 있는 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산둥성 출신 근로자 왕카이봉(39세)씨의 소박한 소망이다. 지난 2007년 12월 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왕카이봉씨는 각종 조인트류를 생산하는 삼성플렉스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 중의 한사람이다.

중국 산둥성 이몽산 태생으로 고향에 아내(38세)와 13살난 딸과 6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는 왕카이봉씨는 한국에 오기 전 산둥성 칭다오에서 한국 회사에서 10여년을 일했다고 한다. 그러했기에 산둥성 정부에서 한국 연수생 모집을 나왔을 때 고집하고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왕카이봉씨이다.

"불편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료들도 친절하고, 특히 사장님이 항상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한국인 동료들이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조금은 슬퍼요."

회사에서 제공해 준 숙소에서 지난해 4월에 입국한 중국 출신 근로자 양하이트우(경장성 출신, 32세)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왕카이봉씨의 하루는 매일 아침 6시 30분 기상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상 후 식사와 샤워를 하고 나면 출근 시간.

식사는 주로 한국식으로 준비하는데, 왕카이봉씨는 한국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 "김치찌개와 삼겹살, 삼계탕 등 한국음식은 다 맛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고등어 김치찌개를 해 먹었지요."

8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해 일을 시작하면 6시에 퇴근하게 되는데, 종종 밤 9시까지의 잔업을 주여지기도 한다.

퇴근 후나 주말 등 여유시간이 생기면 왕카이봉씨는 고향의 아내와 컴퓨터 채팅을 통해 소식을 교환한다. 종종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향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슬퍼요. 회사에서는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는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점이 특히 좋습니다."

왕카이봉씨의 동료들은 그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고 전한다.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시키든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특수용접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인 직원들보다 배우려는 의지가 훨씬 강해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요." 회사 이육근 사장은 "중국 출신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는 의지가 특히 강하다"고 전한다.

왕카이봉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회사가 마련한 각종 워크샵을 통해 인근 명소들을 관광했던 이야기를 끄집어 냈다.

이 회사는 지난 11일과 12일에는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해수욕장을 찾아 워크샵을 갖고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노사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작년 8월에는 남해 해수욕장에서 회사 동료들과 바다 수영을 하기도 했어요. 또, 사랑도와 화왕산을 찾아 등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춘화 기자

수원에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가끔 혼자서 수원을 찾기도 한다는 왕카이봉씨는 "한국에서 보낸 돈을 모아 가족들이 집을 새로 지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일종의 하나"라고 전했다.

그가 살던 고향의 낡은 집은 특히 화강실 사정이 열악했는데, 새로 집을 지었다는 것. 아내에게 새집을 지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집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는 한국생활 2년이 되어 오는 12월이면 중국의 고향을 찾게 된다. 이 회사 이육근 사장은 "외국인 출신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면 2년마다 고향으로 휴가를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왕카이봉씨의 경우 오는 12월 쯤 휴가를 보내 줄 예정"이라며, "왕복 항공료 등을 지원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3년이다. 3년 후에는 귀국해야 하지만, 기존 고용주가 계속 고용을 원할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육근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실하고, 기능도 어느 정도 습득한 상태"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계속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생활이 좋아요. 중국에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 힘든데, 한국에는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왕카이봉씨가 오는 12월 고향의 가족들을 찾아 전하게 될 한국과 한국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송춘화 기자

중국인 한국 여행비자 발급 쉬워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인이 한국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줄이겠다고 한국법무부가 지난 14일 발표하였다

고 중국 언론인 '동방조간(东方早报)'이 지난 22일 보도했다.

7월 15일부터 중국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은행 입출금 내역 증명 통장, 자동차 소유증명서,

부동산 소유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 경제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 여행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기존에 한국 여행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주중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자동차 및 부동산 사용증명서, 이력서, 재직 증명서 등 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한국법무부는 "까다로운 신청요건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비자를 쉽게 받을 수 없었으나, 지금은 최근 6개월 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혹은 입출금 내역 증명 통장)와 자동차 소유증명서(혹은 부동산 소유증명서, 소득증명서) 2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고 전했다.

특히 경제력을 증명하는 플래티

넘, 골드급 신용카드 소지자는 최근 6개월 카드사용 내역서만 제출하면 한국여행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중국인 여행객 유치가 더욱 확대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가 중요한 증명서류로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 한국을 여행하려는 중국인들에게 더욱 많은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8월도 무덥고 국지성 호우 잦을 것으로 예상

남부엔 잦은 열대야
하순부터는 기온 '뚝'

8월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다음달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19~27도, 174~375mm)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 상순과 중순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해 평년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8월 하순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다소 낮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성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전화: 024-8641-8670



오는 9월 13일 심양올림픽축구경기장에서 개최되는 KBS 전국노래자랑 심양편 예선날자가 확정되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노래자랑 예선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심양시 조선족제1중학교 체육장에서 진행하며 참가신청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예선 참가신청은 심양시(沈阳市) 황구구(皇姑区) 장강가(长江街) 한국신성 2층 전국노래자

랑 준비팀 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심양 전국노래자랑 홈페이지(www.kbsshenyang.com)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팩스(번호:024-8641-8670)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국적, 성별, 연령 제한이 없으며 참가자는 기본적으로 한국노래를 불러야 하지만 중국 노래도 부를 수 있다. KBS '전국노래자랑' 심양편은 참가비를 따로 받지 않으며 예선참가를 위해

심양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자비부담이다.

심양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40여 건의 참가문의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17세에 나는 한 조선족 학생은 "한국에서 일하시느라 8년 동안 못 만난 부모님에게 영상편지를 보내고 싶다"며 참가의사를 밝히는 등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진 동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의 전화: 024-8641-8670

한민족신문여행부

특가 항공권 예약, 판매

- * 항공권 예약, 판매 대행
- * 한, 중, 영문 서류번역 대행
- * 친척초청 * 비자접수 대행
- * 공증, 인증, 영사확인서 대행
- * 취업교육 신청서류 대행

TEL: 02—2676—6866

찾아오시는 길 : 2호선 , 5호선 영등포구청 역 5번 출구 앞

에원스튜디오

아기사진, 증명사진, 프로필사진, 가족사진 전문
결혼사진, 환갑사진, 생일사진 친절 상담

중국동포 할인우대 혜택

작가 소개: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전 광진지부 지부장, 광진지부 자문,

한, 중, 일 사진작가 공모전에서 수차 금상, 대상, 우수상 수상.

대표전화 : (02) 498-8641, H P : 011-688-8641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64-9 군자역 5분거리



가족사랑에 대한 실천 첫 번째.

- ◆ 개인자산·변액보험·단체보험
- ◆ 직장인기업보험·종신보험
- ◆ 연금보험·CEO 퇴직연금
- ◆ 직장인 퇴직연금·법인자금 활용

원더우먼이 어려울 때 힘이 돼 드립니다.

상담 ☎ 010-8205-8288

“불법” 체류시기 한 중국동포 여성의 한국생활체험기

15년전의 아픈 기억들 인제는 물러가라!

편집자 주: 지난 10여년간 우리 중국동포들의 코리아드림에서의 희노애락을 되새겨 보는 마음으로 15년전 코리아드림을 한 중국동포 여성(연길 출신, 김경애씨 46세)의 한국생활체험기를 본지에 게재한다.

한국의 첫날은 걱정스럽고 불안하기만 했다

나는 중국 연변에서 근무하던 회사 일을 그만두고 1994년 31살 나던 해 여름, 코리아드림을 택했다. 중국동포들에게 너무도 큰 유흥중의 나라였던 한국은 처음 타 보는 비행기만큼이나 내게 신비롭고 낯선 나라였다.

생전 처음 “불법”이라는 모험을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섰을 때 나는 엄청 큰 불안감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공무자격으로의 입국이라 못 면했지만 달랑 뽕으라는 “브로커”의 명령에 따라 무겁지도 않은 여행용가방을 한손에 들고 핸드백 끈이 자꾸만 좁은 어깨로 흘러내려서 추스르기를 연속하면서 나는 인천출입국 심사대 앞에 다가섰다.

입국심사대에 거의 당도하는 순간 너무도 당황해서 콧가까지 얼얼해지는 열기를 느끼면서 검사원 앞에 다가 갔을 때 누군가 등뒤에서 놀래우기라도 했더라면 영락없이 심장이 멎어버렸을 것이다. 다행히 중국공항보다 한국쪽이 심사가 더 순조롭게 끝났다. 누가 마중 나온다고 전해들긴 했지만 머리속엔 온통 출입국관리소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면 브로커의 말만 뚫는지라 찾아볼 경향도 없이 무조건 사람들이 향하는 대로 공항 출구를 빠져나갔다.

공항 밖에 나와서야 안도의 숨을 후 내쉬며 잠깐 어디로 가야할지 주춤거렸다. 한하게 넓고 잘 트인 공항 도로를 건너 저앞에 쭈세워 대기시켜 놓은 택시에 타야지 생각을 굴리면서 차들이 멈춰선 사이로 등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귀가에 흘린 채 정신없이 도로를 가로 건너 버렸다. 누가 잡으려해도 저 만큼 가있으면 안전할까 싶어서였던 것 같다.

그때 “아가씨, 어디로 모실까요?”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한 택시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주소가 적힌 수첩을 꺼내 보이면서 그러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면서 막 택시에 오르려던 순간 누군가 가까이에서 내 이름을 불러서 돌아보니 1년전에 벌써 한국에 와 있던 큰 시형이었다. “아니, 부르는데 왜 그렇게 정신없이 가오?” 나를 택지에서 끌어당기는 아주버님 얼굴이 반가움보다는 약간은 억이 막힌 듯 황

당하다는 표정이었다. 이국땅에서 친척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였는지 모른다. 잠깐 시형이라는 것도 잊은 채 마치 친청오빠를 만나기라도 한듯 좋아서 어쩔바를 몰랐다. 그리고 있는 내가 재밌었던지 성격 좋으신 아주버님이 잔뜩 골려주기 시작했다. “하하하, 다른 친척들은 시간이 없고 해서 내가 아까부터 공항 나와 기다렸는데 얼굴이 안보이니 한참을 찾았지. 그렇게 쳐내뺐을 부리니까 못알아봤잖소. 근데 아까 저쪽에서 보니까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정신없이 허둥대는 사람이 있길래, 오, 저 사람은 무조건 중국동포겠구나 해서 다시 보니까, 허하... 근데 그 비싼 택시 타고 어디까지 갈려구 그랬지? 담도 크오. 그 아저씨가 어디다 팔아넘기면 어쩔려고 그랬소?”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한참이나 변명하느라 버벅였지만 그래도 속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되뇌이고 있었다. 몇몇인가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면서 큰 시형네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의 어느 한 자그마한 지하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다.

밤이 되여가니 하나 둘 한국에 와 있던 시맥식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보담 훨씬 피곤한 모습들이었다. 젊고 이쁘고 날씬하기만 했던 막내시누한테서 눈가에 잔주름을 보게 된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울게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편하게 벌어 먹다가 이제 식당일을 어떻게 할란가 몰라?...”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에 비해 어려보이고 날씬해 보였던 내가 은근히 걱정되는 눈치들이었다. 환영파티라도 해야겠지만 단속이 심하다면서 시형이 간단히 식사나 하자고 말하는 모습에서 불안감이 더 한층 전해졌다.

저녁식사 후 중국 같았더라면 노래방이요 뭐요 즐지어 다녔을 사이로 등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귀가에 흘린 채 정신없이 도로를 가로 건너 버렸다. 누가 잡으려해도 저 만큼 가있으면 안전할까 싶어서였던 것 같다.

그때 “아가씨, 어디로 모실까요?”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한 택시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주소가 적힌 수첩을 꺼내 보이면서 그러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면서 막 택시에 오르려던 순간 누군가 가까이에서 내 이름을 불러서 돌아보니 1년전에 벌써 한국에 와 있던 큰 시형이었다. “아니, 부르는데 왜 그렇게 정신없이 가오?” 나를 택지에서 끌어당기는 아주버님 얼굴이 반가움보다는 약간은 억이 막힌 듯 황

당하다는 표정이었다. 이국땅에서 친척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였는지 모른다. 잠깐 시형이라는 것도 잊은 채 마치 친청오빠를 만나기라도 한듯 좋아서 어쩔바를 몰랐다. 그리고 있는 내가 재밌었던지 성격 좋으신 아주버님이 잔뜩 골려주기 시작했다. “하하하, 다른 친척들은 시간이 없고 해서 내가 아까부터 공항 나와 기다렸는데 얼굴이 안보이니 한참을 찾았지. 그렇게 쳐내뺐을 부리니까 못알아봤잖소. 근데 아까 저쪽에서 보니까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정신없이 허둥대는 사람이 있길래, 오, 저 사람은 무조건 중국동포겠구나 해서 다시 보니까, 허하... 근데 그 비싼 택시 타고 어디까지 갈려구 그랬지? 담도 크오. 그 아저씨가 어디다 팔아넘기면 어쩔려고 그랬소?”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한참이나 변명하느라 버벅였지만 그래도 속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되뇌이고 있었다. 몇몇인가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면서 큰 시형네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의 어느 한 자그마한 지하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다.

밤이 되여가니 하나 둘 한국에 와 있던 시맥식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보담 훨씬 피곤한 모습들이었다. 젊고 이쁘고 날씬하기만 했던 막내시누한테서 눈가에 잔주름을 보게 된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첫 출근을 하던 식당에서의 나의 탈출기

한국에 온 며칠 후, 막내시누가 벼룩시장 신문을 뒤져가면서 일자

리를 찾아주기 시작했다. 전화상으로 연락하여 여기다 싶어 찾아 들어가면 불법체류인데다 경험도 없어 말을 건네보기도 전에 퇴짜를 맞았고 몇곳을 거쳐서 겨우 일을 찾게 되었다. 그것도 식당에서 먹고 자면서 한달 한반씩 쉬고 70만원. 그래도 그게 어디냐며 이틀날로 시누이는 중국에서 가져간 ‘우황청심환’ 2통을 받쳐가면서 사장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전했다.

그렇게 나는 한국에서의 첫 출근을 시작하였는데 1, 2층으로 된 식당은 가정집 분위기의 부엌집이었다. 사장은 서글서글한 60대 초창기의 경상도 아저씨였고 사장 사모님은 별반 식당하고는 상관없이 보이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의 화장을 째하게 한 50대 초반의 서울아줌마였다. 식당에서 같이 일해야 하는 언니벌 되여보이는 여자 한명이 있었는데 고향이 부산이라서 그런지 “사장님예, 이랬어예, 그랬어예” 하는 귀여운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썼다.

일을 시작한 첫날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뭐 좀 시키면 그대로 쫓아 할건데 웬 일인지 다들 나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 나로서는 참 미치는 일이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오자 손님들이 우르르 밀려들고 여기저기서 주문을 해대는데 하나를 기억하면 또 하나가 있어지고 음식은 나왔는데 누가 시켰는지 몰라서 눈치만 보고 있고 멍청하니 같이 일하는 언니 뒤꽂무니만 헤돌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갑해 미치겠다는 눈길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게다가 말투까지 이상한지 뭐라고 물어보면 그거 알아들을 시간이면 이거나 갖다 주라는 식으로 언니는 등을 떠민다. 손님상에 음식그릇을 갖다 놓는 손길이 부들부들 떨리고 바보같이 당황하는 나를 손님들은 걱정스럽게 지켜만 보고 있었다.

하찮게 여겼던 식당일도 대담성고 요령이 필요함을 그때에야 깨닫게 되었다. 전쟁 치르듯이 한바탕 법석이면 손님들이 하나, 둘 식사 자리에서 몰려나고 음식그릇을 주방으로 날라가는데... 사장 사모님이 주방으로 들어오란다. 물이 가득 담겨진 싱크대에 세제며 락스까지 부어놓고는 장갑도 없이 그릇을 씻으라는 것이다. 락스가 얼마나 독한 것인지는 그때까진 잘 몰랐기에 담뱃거리며 그릇을 씻어대기 시작했다. 이왕이면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릇을 쳐들고 보는 사이에 옆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릇들이 쌓여지고 있었다. “애예, 뭐하니, 좀 빨리빨

리 해야지” 사장 사모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리고 나는 또 속이 한줄이 돼서 손놀림을 다그치다가 쟁그랑하고 접시 하나를 손이 미끄러워 주방바닥에 깨놓고 말았다.

오후 3시가 되여갈 때에야 정신을 먹기 시작했는데 밥값만큼도 일을 못한 것 같아서 밥먹는 것도 눈치보였다. 그래서 “일 못해서 죄송해요.” 가까스로 뽕은 한마디에 “절편 다 그래, 이제 하다보면 요령이 생길꺼야.”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넘기는 사장 사모님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중국에서 말로만 들었던 야박한 한국주인들 모습하곤 너무나 차이가 큰 것 같았다. 도량이 넓다고 해야 하나? 다르다고 생각했다.

한데 좋은 날은 몇일 못가고 나에게는 스트레스만 잔뜩 쌓여 갔다. 중국의 모든 것에 익숙해졌던 나의 사고방식과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부족의 차이에서 오는 모순도 컸다. 중국에서 삼강이 지시하면 차근차근 받아하던 굳어진 사고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하나에서 열까지 가르쳐주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방식이 안통했다. 스스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했고 요령을 장악해 나가야 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순진한 듯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그런 내가 참 많이 바보스러웠던 것 같다.

그때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1, 2층 사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무거운 쟁반을 나르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세집을 따로 맡지 못한 상황에서 식당의 한 쪽 방구석에 주숙하고 있을려니 같이 일하는 언니가 열시가 되여 칼칼이 퇴근해 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몫이 일이었다. 사장 부부는 저녁이면 딸모는 다이어트 한다고 안먹는 바람에 나 혼자서 쟁겨먹기도 미안스럽고 해서 가끔은 저녁을 굶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날 무엇을 찾으러 1층에 내려왔는데 사장 부부가 차킨을 시켜 놓고 맛있는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 처량했던 나의 심정을 어디에 비할 수가 없었다. 그 뒤로도 종종 그런 일을 목격했고 후시라도 부딪치면 마지못해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먹어보라고 그러는 것 이었다. 식당에 일하면서 굶었다는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할 때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온 7개월 후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사장 부부가 자가용에 태워준 서울구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처음으로 돌아보는 서울 야경은 너무나도 아름답았던 것이다. 사장 사모님의 후

배인 듯한 사람이 차린 노래방에서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고 식당에 들어섰을 때는 새벽 두시가 다 되었다. 너무 피곤해서 부라부라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다섯시가 못돼서 식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부시시 깨어 일어나 보니 사장 부부가 그 시간에 가락시장에 물건을 구입을 다녀온 것이었다. 잠이 덜 깬 상황에서 무우며 배 박스를 끄짱거리고 주방에 날라가고 나니 온몸이 해나트헤져서 정말 그대로 잠들고 싶었다. 한데 사장 사모님은 잠도 없는지 그 길로 열무를 손질한다면서 법석이고 있었다. 나보곤 그대로 올라가서 자라고 했지만 그냥 또 혼자 올라가긴 뭐하고 해서 “괜찮아요”를 연발하면서 또 한번 착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만큼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불법이기가까진 나를 받아주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서 사장 사모님에게 더욱 이쁨받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오산이었다. 시간이야 어찌됐든 나는 그날

의 일들을 계속해야했다. 사장 사모님은 점심 끝나고 나서 아무 때까지나 한숨 자면 되었고 그래서 피곤한건 나뿐이었다. 장사가 좀 되었다 싶으면 가끔은 또 새벽에 가락시장을 가야하는데 어쩔수 없이 나도 따라나서곤 했다. 점차 나는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 96년 3월 남편이 한국회사에 취직되어 방 하나를 마련했다. 그로부터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사장 사모님은 영 내켜하지 않는 모양을 지었다. 며칠 후 다른 한 언니가 식당에 들어왔고, 그로부터 나는 사장사모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다. 새로 나타난 언니는 손님한테 애교스럽게 써빙도 참 잘했고 일도 짹짜게 해제했다. 무뚝뚝하고 어정쩡한 나하고 비교할 때 내가 주인입장이었더라도 뻔한 비교였다. 그러면 차라리 속편히 나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될 것인데 사장 사모님은 한사코 내 걸점들만 꼬집어 놓는다. 흠에서 뭐 여다녀도 바쁘게 살살 걸어다니는둥, 뭐라하면 네, 네 대답 한번 시원하게 들어본적 없다 는둥...

주인 입장이라 할 말도 많았겠지만 죽어라 한다고 일하는데 잘 안되던 그때는 참으로 억울했었다. 결국은 어느날 아침인가 아침부터 이어지는 스트레스와 물분을 참지 못하고 나는 1년 반 일하던 그 식당을 탈출하고 말았다. 등뒤에서 사장 사모님이 들으라는듯 소리지른다. “중국년들은 왜 다들 저 모양이야, 맨날 개처럼 짹짹하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다시 돌아서서 식당안에 돌돌이라도 뿌려던져야 속이 내려갈 것 같은 심정이었지만 나는 또 그럴수 있는 입장에 신세도 못되었다.

이제는 15년이만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때 첫 식당에서의 탈출이 어찌된 나머지 내 한국생활에 있어서 경험과 면역력으로 뒷 받침되어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인제는 15년전의 아픈 기억들이 다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장과 종업원 사이에도 일로서의 확실한 계산이 있어야 함과 한국인이 아님으로서의 부족함은 스스로가 채워가야 함은 그때 내가 느꼈던 첫 감수이다. /김경애 구술 송춘화 대필

서울시 세금 납부 방법 다양해진다

개인 형편에 따라 인터넷으로 다양한 결제 방법 선택 가능

◆ 신용카드 한도까지는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현금 납부

앞으로 서울시 세금 납부 방법이 더욱 다양해진다. 시민고객들이 개인 형편에 따라 인터넷으로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세금은 신용카드 한도액을 넘는 고액세금고지서(보통 1건당 500만원)를 받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 전액 현금으로만 납부해야만 했다. 하지만 7월 15일부터는 신용카드 한도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은행 영업시간과 납부 장소, 납부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 평일 은행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던 세금 납부가 야간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가능하게 되면서 서울시 ETAX 시스템을 통한 세금 납부가 점

점 증가하고 있다.

◆ 두 개 이상 신용카드로 나눠 세금 납부 가능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납세자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나눠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한 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만 했다. 하지만 7월 15일부터는 신용카드 한도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과 취득·등록세 등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부금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총 10회까지 가능하고, 서울시 세금납부는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외환, 신한카드(국민카드는 제외)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지하철역사 등에서도 세금을 납

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시민고객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를 위한 납부 절차

- ①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접속 → 회원납부 로그인 →
- ② 화면에 조회된 과세내역 중에서 일부납부할 건의 [일부납부] 클릭 →
- ③ 화면에 나오는 내역 확인 후 일부납부할 금액 입력 후 [납부] 클릭 →
- ④ 화면에 조회되는 금액 확인 후 납부할 카드사(또는 은행) 선택 후 [납부] 클릭 →
- ⑤ 결제완료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려면 [일부납부 바로가기] 클릭 →
- ⑥ 3번 화면으로 이동해 나머지 납부할 금액입력과 납부할 은행(또는 카드사) 선택 후 [납부] 클릭

代办电脑入网申请手续

好消息:

本服务中心为在韩中国人提供如下服务:

1. 代办电脑入网申请手续, 无电脑者也可申请
2. 代办网络电话申请手续
3. 代选新电脑或二手电脑及移动硬盘

欢迎在韩中国朋友广为利用

電話: 02-2676-6866, 2637-0814 H/P: 010-6866-0815

本報法律服務中心專門商談

中国人的工伤, 产灾, 拖欠工资等问题

本報法律服務中心爲中國人專門商談和解決工傷, 產災, 拖欠工資, 死亡, 交通事故, 國際婚姻者的出入境管理所的一切手續和結婚手續以及國籍整理等問題.

商談電話: 02-2637-0814, 02-2676-6866

傳真號碼: 02-2676-6866

電子郵件: xinwen77@naver.com

地址: 地鐵 2 號線, 5 號線永登浦區政府站 5 號出口前 15 米處.

中国驾驶证换发韩国驾驶证

持有中国驾驶证的合法居住者,

只考笔答考试既可获取韩国驾驶证.

代办中国的公证, 认证, 领事馆确认手续.

☎ 02-2637-0814

02-2676-6866

한국생활 10년만에 해양경찰관 된 조선족



“낯선 곳에서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갖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한국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중국어’ 으로 불리는 김영옥 씨(33·사진)는 ‘억척 아줌마’ 로 통한다. 중국 동포로 한국으로 시집온 지 10년 만에 목표한 꿈을 모두 이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이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1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해양경찰관에 합격했다. 충남 천안시 해양경찰학교에서 6개월간 교육을 마친 김 씨는 24일부터 순경 계급장을 달고 목포해양경찰서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첫 임무는 3008경비함(3000t급)을 타고 다음 달 4일부터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을 단속하는 것이다.

그는 특상 근무 대신 해상 경비정 승선을 지원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김 씨는 “한번 출동하면 7박 8일간 바다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남매를 돌볼 시간이 없지만 남편이 잘 키우겠다고 해서 선상 근무를 택했다” 고 웃었다.

김 씨는 남편 성홍범 씨(46)는 전남 해남경찰서 기능직 9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씨는 남편을 1999년 중국 길림성에서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나 결혼했다. 할아버지 때 가족이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태어난 김 씨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해남군에서 중국어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하면서 ‘억척 아줌마’ 의 근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어 실력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았던 그는 선배 통역사들의 통화 내용은 물론 관광 해설 방법 등을 녹음해 집에서 듣고, 쓰고, 외우기를 반복했다. 이렇게 노력한지 2년 만에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까지 구사 할 정도가 됐다.

한국어에 자신이 붙은 김 씨는 곧바로 4년제 대학에 도전장을 내밀어 2007년 대불대 졸업과 함께 교사자격증도 취득했다. 이때부터 김 씨는 해양경찰관을 최종 목표로 정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가 도전한 분야는 중국어 통역이었지만 중국어 외에도 각종 시사상식과 경찰 업무 관련 전문 지식, 체력 시험 등이 필수 과목이었다. 전문서적을 읽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대형 패스 운전면허증까지 취득했지만 첫 번째 도전은 체력 시험에서 떨어져 실패했다. 재도전에 나선 김 씨는 지난해 체력 단련을 위해 태권도는 물론 해남군 육상팀에 합류해 멀리뛰기와 윗몸일으키기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한 끝에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김 씨는 이주 여성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요즘 이주 여성들은 너무 돈벌이에 급급한 것 같아요. 고국에서 배운 지식을 살려 전문 분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어요.” /한미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에게 혜택 주는” 법률사무소

요즘 서울 대림역 1번 출구쪽으로 가면 중국은행건물에 "안민종합법률사무소"란 새로운 간판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무소가 바로 한국생활에서 동포들의 불이익과 고통을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안민종합법률사무소로 발돋움 하고 있는 사무소이다.

안민종합법률사무소는 현재 법무팀에 8명, 통역에 20여명의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다국적 통역요원을 두고 법률상담시 언어상의 장애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08년 7월 26일, 박찬종 대표 변호사를 기반으로 홍천식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 그리고 조성원 전 통일부 소속 변호사 등이 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하고 변호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특히는 중국동포들의 법률자문이 많아지게 되자 지난 5월 23일, 동포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동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찾기가 쉽고 또 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대림동으로 이사를 했다.

생각과 같이 그들이 이사를 하고 얼마가지 않아 동포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되었다. 더욱이 중국은행을 한 건물에 두고 있어서 중국인들에게 더욱 잘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매일 법률상담을 하려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초만원을 이루었다.

하기에 2009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이들이 접수한 건수는 이혼 200여건, 체불임금 접수 1800여건에 해결 1500여건으로 약 80%를 차지하며, 산재, 교통사고, 형사사건, 민사사건 도합 2000여건을 해결해 주었다고 한

다. 매일 평균 80여명의 고민객들이 찾아오거나 전화가 온다는 안민종합법률사무소는 동포들이 평일에는 근무때문에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오후 3시부터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 1년간 안민종합법률변호사사무소는 국제이혼 소송건으로 중국동포, 한족들이 한국배우자의 폭행, 가출, 별거, 사망, 체류연장, 금품 요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의 사건들과 국적신정을 한 상태에서 이혼하려는 분들, 그리고 체류연장과 국적취득, 이외에도 불법체류 및 외국노동자라는 이유로 입금을 받지 못한 분들의 임금체불, 회사근무 및 근로 조업 중 부상을 입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의 산재처리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처리, 금융 및 사기사건 등 어려운 법적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안민종합법률변호사사무소는 아무리 힘든 사건이라고 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약자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예를 들면 안산에 사는 한족여성은 불법체류로 하여 800만의 월급을 못 받는데 계속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너무나도 힘들어 이 사무소를 찾아왔다. 사건을 접수한 법무팀에서는 즉시로 회사와 연락하고 찾아가 몇 개월 밀린 월급을 그대로 받아서 그 여인의 손에 쥐여주었다. 또 밀입국자였던 최모씨는 작업도중 손가락 2개가 찢려 나갔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다가 안민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산재처리하여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주었다. 이외에도 인천

에 사는 한 여성은 결혼으로 입국하여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직장을 가지게 되자 직장에서 숙식하면서 휴일마다 만나는 주말 부부였는데 단속에 걸려 위장결혼으로 판정되어 각각 300만원의 벌금과 여성의 강제퇴거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이때에도 이 사무소의 도움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공전자 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정확한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강제추방이라는 억울함을 피할 수가 있었다.

현재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 는 사훈을 슬로건으로 내놓은 안민종합법률사무소는 동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구인, 구직, 귀화시험교육 같은 항목도 추가하기 위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2명의 변호사를 추가하여 "법무법인-안민"을 만들고 공동업무까지 겸한 법인사무소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재외동포정책” 초청 강연

7월 24일 오후 2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2층 세미나실에서는 재외동포포럼과 한국방송통신대 통합인문학 연구소의 주최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위원장의 초청강연이 있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글로벌 코리아 시대의 재외동포정책” 주제 강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면서 “현재의 단일국적주의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우수한 동포 인재들부터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및 동포 인재 활용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서 박 위원장은 재외동포 선거권 개정 문제에서 앞으 우편투표문제에 부딪히게 될 일들에 대하여 신중하고 심하게 고려해서 보다 더 좋은 정책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재한 중국동포 단체들과 동포언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박 위원장은 방문취업제 문제에 대해 요즘 많이 술렁이고 있는 재한 중국동포사회를 해아려 동포사회가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 행사에는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문과학 학장의 사회로 장시원 총장과 박정무 원불교 교무, 이효정 세계한인여성유권자총연합회 회장, 조통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부회장 등 내외빈과 동포 관련 여러 단체관계자 등 60여명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강연에 앞서 자신 방통대 중국어중문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라면서 “재학생으로서 모교에서 강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광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은 박 위원장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유주 송춘화 기자

보이스 피싱에 조심해야

요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동포들이 더는 이런 피해를 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난해 말 출국금지를 당한 한 동포가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고 공항에 나갔다가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문도 모르고 출국금지까지 당하게 된 이 동포는 공항직원에게 자조지종을 물어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족을 떠나서 혼자 한국에 와 체류하는 그는 달마다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는데 이젠 집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아두었던 돈 1,300만원을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별 송금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기가 된 것이다. 그가 입금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경찰에서 출국금지를 시켰던 것이다.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그는 다시 경찰서와 출입국사무소, 검찰에 까지 뛰어다니면서 사정도 하고 사실의 자조지종을 설명하고 통고처분까지 받고 나서야 출국금지조치가 해제되어 출국할 수가 있었다.

올해 초에 있는 일이다. 한 동포 여성이 전화를 걸어와 영등포구 치소에 남편이 수감되었는데 영문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자조지종을 알아보았더니 통장을 아는 사람에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바로 통장의 주인인 남편이었기에 수감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조사에 잘 협조해주고 또 직접적인 참여가 아니었기에 벌금 150만원을 내고서야 풀려나올 수가 있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된 한 젊은 여성은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고향언니한테 4개의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가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한 고향에서 자란 이 언니가 자기는 지금 결혼비자여서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대신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통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통장들도 모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런 원인으로 하여 출입국사무소에서 그의 체류연장허가가 불허되어 불법체류자로 되고 말았다.

요즘에도 이런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에 사는 한 동포는 전화사기에 걸려 1,500만원의 현금을 고스란히 날려 보내고 말았다. 이날 그는 휴일이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카드회사라고 하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전화에서는 “당신의 카드가 비밀번호가 쉽게 노출되는 번호라서 보완대책을 대야 하니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주민번호를 알려주었다. 한참 후 좀 이상한 생각이 든 그는 바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자 벌써 15,00만원이 빠져 나간 상태였다.

또 독산동에 사는 한 여성도 잡결에 “은행인데 신분증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하는 전화를 받고 얼굴에 신분증번호를 알려주 고 나서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는 바로 카드정지신고를 하였지만 때는 이미 15,00만원이 인출된 후였다.

이처럼 날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고 또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 우선 정상적인 은행송금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원, 우체국, 경찰 등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 신용카드 대금 연체, 출석 요구, 연금 환급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바로 끊어버려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또 이미 사기전화에 속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에 곧바로 신고하여야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신중하게 대처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앞으로 많은 동포들이 각성하고 조심해야 한다.

/전길운 기자

보이스 피싱이란?
보이스 피싱이란 어떤 상대를 목표로 하여 범행을 시도하는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전화사기 수법을 말한다.

금천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 서울 금천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는 현재 350여명의 자율방범대원들로 구성되어 관할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 주고 있다. 사진은 박승용 경찰서장 앞줄(중), 한인수 구청장(좌2), 서오석 연합대장(좌1), 한민족방범대장 엄은하(우2).

두손없는 조선족 여학생 中명문대 입학

불의의 사고로 두 손을 잃은 조선족 여학생이 역경을 딛고 중국 명문대에 합격해 학제다.

23일 연변일보(延邊日報)에 따르면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시 2중학교에 재학중인 김연화 학생이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에서 579점을 얻어 베이징의 중앙민족대 외국어학원에 최종 합격했다.

중국의 명문대인 중앙민족대에 합격하기까지 김 양과 그녀의 어머니 김금선씨가 기울인 노력은 놀랄 겨웠다. 김양은 다섯 살 되던 해 정신질환자가 마구 휘두른 흉기에 두 손을 잃고 온 몸을 난자담한 채 겨우 목숨만 건질 수 있었다.

그날은 그때부터였다. 천신만고 끝에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소학교에서는 두 손이 없는 김 양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문이 날도록 학교를 찾아가 선생을 호소한 끝에 겨우 딸을 학

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던 김씨는 이때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딸과 함께 학교를 오가며 그녀의 손과 발이 돼 주었다.

연화 양도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았다. 팔목 사이에 연필을 끼워 글을 쓰는 시험인 가오카오(高考)에서 579점을 얻어 베이징의 중앙민족대 외국어학원에 최종 합격한 김 양을 축하하며 김씨는 “모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양은 “늘 도움만 받아 고맙고 죄송스럽다”며 “모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인을 되찾아 온 “금덩이”

7월 9일, 서울에서 목단강행 비행기에 탑승한 김구현 최동환(崔? 活, 43세)씨는 집 떠난지 3년만이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쁨은 더 말할 수가 없었다. 오후 2시가 넘어 목단강에 도착한 그는 바빠 공항을 나와 먼저 해립시에 있는 누님의 집으로 갈 길을 다그쳤다. 곧 다가오는 해립시를 눈앞에 둔 최씨의 손은 의식적으로 갖고 온 집에 손이 갔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그마한 집 하나가 엮여졌다. 갖고 온 4개 짐 가운데

친구의 부탁으로 전해주는, 천여원 팔라를 넣은 가죽 가방이다. 아무리 곁을 찌며 더듬어 봐도 감감 무지였다. 다른 물건이라면 몰라도 그것도 돈만 들어있는 자그마한 가방인데 어느 누가 주었다 해도 선심을 쓸까?!

당황해난 최씨는 겨우 정신을 차린 후 일선의 행운을 품고 목단강 공항에 전화를 걸었더니 돈 가방이 공항에 보관되고 있으니 속히 와서 찾아 가라고 했다. 정말 꿈같은 세상이었다. 고향땅엔 “금

덩이를 보고도 흑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다 있구나! 그는 얼마나 기뻐는지 몰랐다.

공항의 X광기계 안전검사를 거쳐 배가 충만했던 최씨가 “물건!” 하나를 빼져냈던 것이다. 검은 가죽가방 하나를 발견한 세관 검사관의 왕도 과장은 끝내 찾아오는 손님이 없기에 “물건”을 검사해 보니 가방안의 큰 봉투에 1571달러만 들어있었고 실주의 아무런 증견도 없었다. 즉시로 상급에 정황을 회보한 왕과장은 돈 가방을

잘 보관하고 실주가 찾아오길 기다렸다.

7월 12일, 목단강 공항 세관검사과에서 돈 가방을 받아온 최동환씨는 세관 인원들의 고상한 품격에 너무도 감동하여 당장에서 몇장의 팔라를 꺼내어 감사의 뜻을 표했건만 끝내 사절당하고 말았다.

수년만에 돌아오는 고향의 길. 고향의 정, 짙은 고향의 고상한 정신풍모를 목격하면서 고향을 나선 동환씨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다. /리 현

구독 · 광고문의
02)2676-6866, 02)2637-0814